

## <프 로 그 램>

시 간	순 서	내 용	비 고
15:30~15:35	여는 인사말	환영인사	신 선 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15:35~15:55	기조발제	국내 생활예술의 현황과 전망	정 중 은 (서울대 미학과, 문화정책 박사)
15:55~16:10	지정토론 1	국내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방안	김 보 성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16:10~16:25	지정토론 2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6:25~16:40	지정토론 3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정 길 선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
16:40~17:00	종합토론		

## <목 차>

### ■ 기초 발제

_ 국내 생활예술의 현황과 전망	1
-------------------	---

정 중 은

(영국 Glasgow 대학 문화정책 박사/서울대 미학과 강사)

### ■ 지정 토론

_ 토론 1. 국내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방안	19
--------------------------------	----

김 보 성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_ 토론 2.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21
-----------------------------	----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_ 토론 3.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방안	27
-----------------------------------	----

정 길 선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장)

## 기조 발제

# 국내 생활예술의 현황과 전망

정 종 은 (영국 Glasgow 대학 문화정책 박사/서울대 미학과 강사)

## 1. 생활예술이란 무엇인가?

### 1) 생활예술의 정의

한국에서 ‘생활체육’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최근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생활예술’ 개념은 엘리트 예술이나 제도권 예술과는 달리, (1) 일상생활 속에서 (2) 일반인들에 의해서 (3)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생활예술’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영국에서는 자발예술(voluntary arts), 아마추어 예술(amateur arts) 등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비공식예술(informal arts),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 등의 개념이 유사한 활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성남문화재단, 2009: 34-35). 2008년 발표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발예술 또는 아마추어 예술에 참여하는 인구수는 약 5만 여개 단체에 걸쳐 총 6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심에는 1991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300여개에 이르는 자발예술 단체들을 회원으로 거느린 VAN(Voluntary Arts Network)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참여예술’ 또는 ‘비공식예술’이란 개념을 통해서 예술계에서 통용되는 형식적이고 조직화된 전문적인 예술 활동에 대비되는 실천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술활동은 향유와 참여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표 1>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대조적 특징

	생활예술	전문예술
터전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구조화된 예술계 속에서
주체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전문예술가와 비평가에 의해서
동기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 (자발예술, 참여예술)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활동

1)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적 진흥근거가 마련된 생활체육과는 달리, 생활예술 진흥을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활예술의 정의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일상생활 속에서’라는 내용은 생활예술이 발생하는 터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비공식예술’ 개념에서 잘 드러나듯이 구조화된 예술계와 대척점에 자리하는 생활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인들에 의해서’라는 내용은 생활예술의 주체를 의미하는 바, 전문예술가와 전문비평가가 아닌 일반인들, 즉 아마추어 예술가와 비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을 지시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향유되는’이란 내용은 자발예술이나 참여예술 개념 등을 통해서 강조되는 생활 예술 활동의 동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위치설정(positioning)이 모든 예술적 실천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1746년 샤를 바뮈에 의해 정립된 근대적인 ‘예술’ 개념의 출현배경과 대비되는 새로운 예술적 실천의 양태로서 생활예술의 변별적 자질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뮈는 『단일한 원리로 환원되는 예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의 이상적인 모방이라는 원리가 회화, 조각, 건축 등 르네상스 이래로 디세뇨(disegno), 즉 미술이라고 불려온 조형적인 활동과 시, 음악, 무용 등 공연과 연계된 활동을 관통하는 원리라고 규정하고, 근대적인 예술 개념과 체제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이후 근대 미학의 발전 속에서 ‘예술’은 여타의 기술(techne)들과 분리되면서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심미적 발전 과정의 최고봉으로 격상되었고, 취미(taste), 천재, 자율성 등의 개념들과 결합하면서 일상생활로부터 증류되어 독특한 형식주의적 함의를 띠게 되었다. 생활 예술 개념은 이러한 순수예술, 고급예술, 전문예술, 엘리트예술, 공식예술 중심의 근대적인 예술 개념 및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인 관심과 동기에 의한, 전방위적인 공간 및 영역에서 펼쳐지는, 아래로부터 생성되어 솟구쳐 오르는 예술적 실천을 지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 생활예술 활동의 유형 및 주체

생활예술을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자발예술, 참여예술)’이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위 정의의 범주를 구성하는 터전, 주체, 동기 등 각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인 구분을 통해 생활예술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첫째, 생활예술의 터전으로서 예술계와 대립되는 생활세계란 단순한 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적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communitiy)란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적인 삶의 조건과 관심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생활예술의 실천은 이와 같은 ‘공간적 공유’와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갖는다.<sup>2)</sup> 그러나 공간적 공유는 생활예술 활동의 중핵이 되는 ‘생활예술

2) 이렇게 본다면, 전국에 산포되어 있으며 물리적인 만남을 거의 갖지 않는 많은 인터넷 예술 동호회들은 온전한 의미의 생활예술 공동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유된 일상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파편화된 일상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생활예술 공동체를 이루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을 포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간적 공유에 더하여 대표적인 생활예술 공동체의 실질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해온 사랑방클럽들은 예술 동호회로서 '관심공동체' 또는 '취향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에 참여한 여러 동네의 주민들은 '지역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cf. 윤소영 외, 2009). 이 두 가지 외에도 공간적 공유를 통해서 생활예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위로는 기업의 문화예술 동호회들이 존재하는 바, '직장공동체'로 분류할 수 있는 이 공동체들은 비록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을 통해서 (상대원 공단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 이후로는) 본격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여가 환경 조성'이라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전략적 과제와 맞물리면서 국내 문화정책계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예컨대, 현재 문체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2013년 9개 산업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2017년 24개 산업단지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직장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와 연계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확산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활예술 정책은 크게 지역공동체(삶), 관심공동체(여가), 직장공동체(일)를 기반으로 하여 근접한 공간을 터전 삼아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생활예술 공동체를 진흥하려는 정책 역시 각 공동체의 성격적 차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입안 및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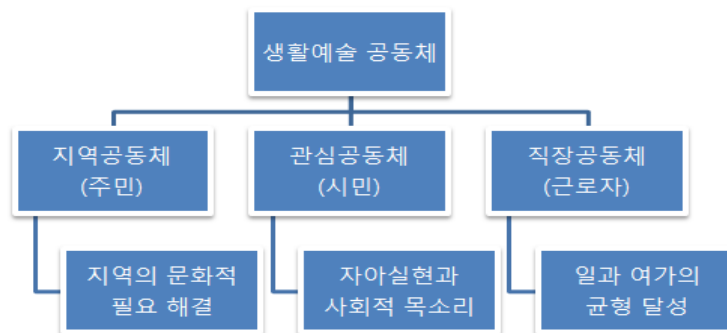
<그림 1> 생활예술 공동체의 세 유형



둘째로, 생활예술의 주체로서 상정된 '일반인'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추어 예술가 및 예술애호가들이 생활예술 활동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직장공동체의 서로 다른 특성에 상응하여 공동체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생활예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경우, 주체가 되는 일반인은 '주민'으로 개념화되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예술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관심공동체'의 경우, 그 구성 범위에서 구 단위와 같은 특정한 행정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공동체보다는 지역성(locality)이 훨씬 느슨하

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술적 배움과 향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성과 관점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주체를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문제해결에 관심을 지닌 ‘주민’, ‘관심공동체’의 주체를 문화예술의 형식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목소리를 드러내려는 욕구를 지닌 ‘시민’으로 형상화 할 수 있다면, ‘직장공동체’의 주체는 자신의 일터에 기반을 두고 문화예술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와 관심공동체의 성격을 혼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일과 여가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그림 2> 생활예술 공동체의 유형별 주체와 목적



생활예술 정의의 마지막 대목을 구성하는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이라는 내용은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체들로서 주민, 시민,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기본 관심(지역의 문화적 필요 해결, 자아실현과 사회적 목소리, 일과 여가의 균형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활동들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창작 또는 비평 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참여로부터 나오는 자발성과 자생력이 생활예술 공동체의 핵심적인 원천이자 동기가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예술의 ‘자발성’과 순수성은 칸트 이후로 근대 미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예술의 ‘자율성’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후자가 ‘오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취미판단, 또는 ‘무관심적 주목’에 입각한 활동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전자는 개인과 생활예술공동체, 나아가서는 지역과 사회의 요청이나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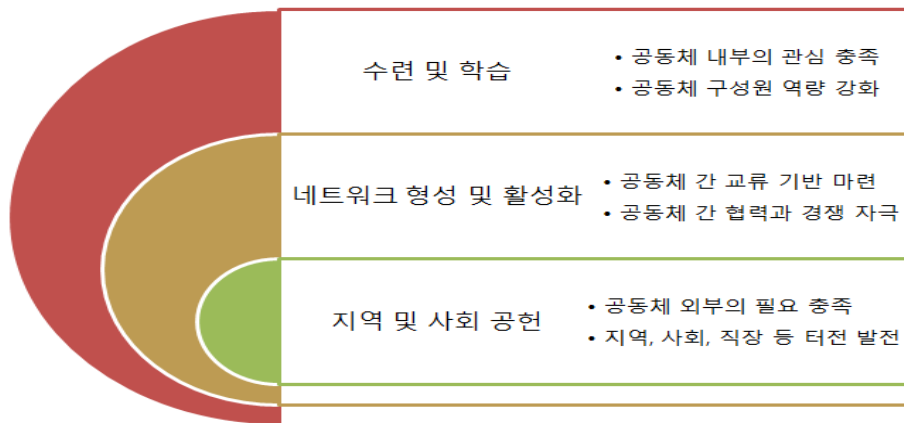
### 3) 생활예술 활동의 지향 및 중요성

이상에서 살펴본 생활예술 개념의 정의와 그로부터 비롯된 보다 세세한 유형 구분은 생활에

3) 문체부의 직제를 살펴본다면, 기존에 관심공동체나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생활예술 공동체 활성화’는 주로 지역민족문화과에서 다루어온 의제였다고 한다면, 직장(생활예술)공동체는 문화여가정책과에서 다루게 될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술 공동체의 실제적인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생활예술 지역공동체, 관심공동체, 직장공동체를 가로질러서 공통적으로 추진 또는 추구되고 있는 주요 활동은 (1) 수련 및 학습, (2)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3) 지역 및 사회공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3> 생활예술 공동체 주요 활동의 세 층위



생활예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활동은 ‘수련 및 학습’으로서 해당 공동체 내부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문화공동체 또는 예술공동체의 근원적인 조건으로서 구성원들의 예술적-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층위는 생활예술 공동체 간의 교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공동체 유형별 교류(e.g. 사랑방클럽들의 네트워크)와 공동체 유형간 교류(e.g. 우리동네 사업의 마을 축제에 사랑방 클럽들의 참여)가 모두 가능하며, 주요 활동은 공동체 간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예술 공동체 간 협력과 경쟁을 자극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생활예술 공동체 간의 교류는 공동체 내부의 수련이나 학습과는 달리 여러 공동체들 사이의 공통적인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교류를 촉진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매개자 또는 코디네이터를 필요로 하는바, 이러한 역할은 관련 공동체 내부의 인재를 발굴하여 수행될 수도 있고 전문 예술가나 행정가의 지원을 통해서 수행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예술, 아마추어 예술, 자발예술, 참여예술 등의 개념 성좌(constellation)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생활예술 활동을 여타의 예술적 실천과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층위는 ‘지역 및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선 두 층위의 활동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과 시민과 근로자라는 각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체들이 지닌 기본 관심이 종국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이다. 즉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요 활동은 공동체 내부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관 공동체 사이의 교류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나아가서는 내부의 역량축적과 공동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동체 외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해당 공동체들이 뿌리박고 있는 터전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관심으로

발전해나간다고 할 수 있는바, 성남문화재단의 생활예술 사업은 이 세 층위를 ‘사랑방-사랑마루-사랑마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응축적으로 제시해왔다(전수환, 2009).

이와 같이 생활예술은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자발예술, 참여예술)’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의는 생활예술 활동의 층위 구분에서 잘 드러나듯이 파편화된 개인들이 자신들의 사적 영역에서 전개하는 비전문적인 예술적 실천과는 별 상관이 없으며, 대신에 그 근원이자 궤대로서 문화공동체적 관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연결되고 결속된 공동체’를 ‘문화예술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생활예술공동체는 문화예술공동체를 제도화된 예술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이 존재하는 모든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바로 여기가 엘리트 계층 바깥으로 고급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를 넘어서 모든 이들의 문화적 욕구와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의제가 생활예술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 2.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 1) 세계 문화정책에서 생활예술의 부상

양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격화된 현대의 문화예술정책의 역사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사례는 바로 이차대전 직후(1946) 경제학자 케인즈의 주도로 설립된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이다. 영국의 매개자 모델 또는 공적 후원자(public patron) 모델의 중핵으로서 대영예술위원회는 ‘팔길이원칙’을 모토로 한편으로는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계의 압력으로부터 이중적인 자율성을 견지하면서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진흥하는 대표적인 비정부공공기관 또는 준정부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누려왔다(Quinn, 1997; 1998; Sinclair, 1995).<sup>4)</sup> 그러나 대영예술위원회의 초기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급예술과 엘리트예술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발생한 기점으로는 1959년에 <Help for the Arts>라는 리포트가 출간되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덜 위계적이고 더 지역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꼽을 수 있다(Holden, 2006). 1965년 윌슨 정부는 영국에서 예술관련 최초의 백서로 기록된 <Policy for the Arts>를 통해 이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예술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이로부터 ‘자발예술’ 또는 ‘생활예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현재 영국에서 생활예술은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물론 예산상으로는 생활예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고급예술, 전문예술에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 문화적 국가, 잉글랜드’를 비전

4) 1992년에 ‘국가유산부’가 영국 정부의 문화전담 부처로 창설되면서 1994년부터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로 사분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는 최근 문화산업 진흥까지를 포함하는 ‘creative scotland’라는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으로 삼고 있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미션은 다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로 집약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예술진흥에 있어서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즉 예술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재능, 특정 직업에 국한된 활동이라는 관점은 빠르게 후퇴하고 있으며, 이제는 모든 시민/국민 또는 공동체의 창조성 진흥, 거주적합성 증진 등이 예술진흥의 가장 주요한 목표이며 따라서 ‘모두’의 예술 창작과 향수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주요국 예술위원회의 비전 및 미션 비교 (임학순·정종은, 2013)

	비전	미션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CE)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문화적 국가, 잉글랜드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의 성취
캐나다예술위원회 (CCA)	국가적·국제적 무대에서 캐나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특색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모든 호주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의 활기찬 분야로서 예술, 시대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예술가들, 나라 전체 및 국제 사회에서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는 호주 예술,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는 예술
미국연방예술기금 (NEA)	예술이 모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들의 거주적합성 (livability)을 증진시키는 국가	개인 및 공동체의 효익을 위해 예술적 우수성, 창조성, 혁신을 증진
호주예술위원회 (ACA)	예술의 연구와 향유 및 예술작품 생산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것	호주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들이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색 있는 문화적 작품들의 창작, 전시, 감상을 지원하는 것

<표 3> 주요국 예술위원회의 10대 사업내용 비교 (Ibid.)

	잉글랜드	미국	캐나다	호주
1. 예술인 창작 지원	Grants for the Arts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	Art Works 사업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Creation & Production, Residencies, Professional Development 사업	Residencies, Creative Development, Skills Development 사업
2. 예술인 복지 (펠로우십과 표창 등)	N/A	문학 펠로우십, 재즈 마스터즈, 국가 유산 펠로우십, 오페라 공로상	여러 종류의 총독상을 포함하여 약 200여건의 표창과 수상	Creative Australia Fellowships, 예술 장르별 펠로우십, 그리고 4개 장르에서 별도 수상
3. 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	Regional Arts Organization 사업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Operational Fund 지원 사업	Infrastructure, Program, New Work 사업
4. 예술단체 조직개발 (컨설팅 등)	Catalyst Arts (재무구조 컨설팅), Capital (시설운영 컨설팅) 프로그램 등	카네기멜론대 및 National Finance Center와의 협업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정기준과 절차 마련	‘Flying Squad’ 등 Organizational Development 사업, Project 지원, Presentation & Dissemination 지원	Artistic Reflection Kit 개발, 최고경영자 및 신진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운영
5. 국제교류 활성화	Artists’ International	USArtists International	Touring 및 예술제 참가 지원,	International Touring 사업,

	Development Fund	프로그램(해외축제 참가지원), 해외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제공 프로그램 등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외교부와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진출지원 등	유럽공연예술 회의와 네트워크 사업, 신흥국가에 특화된 교류 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등
6. 관객개발 및 향유 확대	Audience Focus 사업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	Challenge America Fast-Track, Shakespeare in American Communities 사업	Audience and Market Development Travel Grants 사업, 공연예술 agent 보조금 사업	ADVICE 프로그램 및 SNS 사이트 운영, 'Go See Fund'나 'Road Work' 등 Presentation & promotion 사업
7. 예술교육	구(舊) Creative Partnerships 사업, Artmarks, In Harmony, National Youth Dance Company 사업 등	Poetry Out Loud, The Big Read 프로그램, 국가 예술인문 청년상 등	ArtsSmarts 재단과의 협업 및 독자 프로그램으로 학교 예술 동아리 지원이나 갤러리 방문 보조 등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기합 프로젝트 보다는 작은 규모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
8. 지역 공동체 및 생활문화 지원	Creative People & Places 사업, Touring 프로그램, Renaissance in the Regions 및 Future Libraries 프로그램 등	Our Town 사업, MICD 25 사업 등 '창조적인 장소만들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프로젝트 지원과 여행 지원), ACCP (Artists & 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 등	Residencies 사업, Test Drive the Arts, Big Book Club 등 다수의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9. 연구, 자료보존 및 예술홍보	The Space 사업, Arts Audiences 같은 연구 간행물 출간·컨퍼런스 개최	Research 보고서, 노트, 브로셔 발간 사업, The Arts in Media 사업	예술위원회 사업 통계 및 정보 제공, 외적인 쟁점과 트렌드에 관한 8가지 분야별 연구 간행물 출간	ARTS RIPPA, Arts Smarts 등 간행물 발간
10. 기타 사업운영	예술위 콜렉션(ACC) 지원 등	군 순회공연 및 군인/군인 가족 문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Killam 트러스트, 유네스코 캐나다 위원회, PLR 위원회, 미술은행 운영 등	Artsupport Australia(기부금 중개) 사업 운영 등

## 2) 국내 생활예술 정책의 역사

영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엘리트 예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지역과 향유자에 대한 관심이 공식적으로 대두된 것이 1965년 월슨 정부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관심의 전환 또는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문화창달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강운주외, 2012). 이 계획에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중앙에서 지역으로',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로'라는 새로운 정책기조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참여정부가 『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을 발간하면서부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예술의 창조성 증진', '예술의 자생력 신장', '열린 예술행정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예술정책의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문건은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 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 이후 이러한 정책 방향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아래의 <표 4>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은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 정부 부처 생활예술 정책의 흐름(강운주 외, 2012: 89)

시기	구분	내용
2005년	정책방향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세부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모두를 위한 중장기 예술향유정책 수립 및 추진: 관객개발, 관객 지원 시스템 개발, 접근성 장애요인의 극복 지원</li> <li>-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다양화</li> <li>-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한 특수계층 대상 문화교육 기회 확대</li> </ul>
	특징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적극적 문화소비에 머무름
2006년	정책방향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지속
	정책사업명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세부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교육 정책의 제도화 및 전문성 강화</li> <li>- 개인·기업·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소비 창출</li> <li>-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li> </ul>
	특징	창작자로서의 시민에 대한 고려 없음
2007년	정책방향	예술 향수권 확대
	정책사업명	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세부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협력과 생활예술 활성화</li> <li>-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li> <li>- 예술강사 파견 사업 확대 및 내실화</li> <li>- 미술은행 운영 활성화</li> <li>-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 활성화</li> </ul>
	특징	지역성과 시민성에 대한 강조
2009년	정책방향	생활 속의 예술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 확대
	세부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나눔 활동 지원 : 예술강사 파견 및 공간지원과 연계한 동호회 활동 활성화</li> <li>-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li> </ul>
	특징	예술가에 우선순 둔 지역성과 시민성 강조
2010년	정책방향	생활 속의 예술
	정책사업명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세부이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재단 중심 지원</li> <li>- 생활권에서 시민들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li> <li>- 시민들이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 마련</li> </ul>
	특징	지역성과 시민성에 대한 강조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을 강조하면서 생활예술 정책의 틀(관객개발,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자원봉사, 지역사회협력 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생활예술 정책의 대상(일반 시민)을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생비자(prosumer)로 재정립(repositioning)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2008년 이후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창작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생활예술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

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9월에 발표된 <주요 예술지원정책 개선방향>은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이라는 예술지원정책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생활 속의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 일터와 가정,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활동 여건 마련이 설정되었다. 이처럼 보다 적극적인 생활예술 정책은 중앙이 기획하고 지원하며, 지역은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문화행정 체계를 중앙과 지역의 파트너십이 강화된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요청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방식의 기금,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생활예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확대를 가져왔다(ibid., 83-84; 87-88).

### 3)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2004년 이후로 중앙정부가 ‘생활예술’ 정책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일구어왔다고 하더라도, 역시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전국적인 생활예술 활동의 확산 및 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촉발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역문화재단은 ‘1998년 1개, 1999년 1개, 2001년 3개, 2003년 1개, 2004년 4개, 2005년 3개, 2006년 3개, 2007년 3개, 2008년 6개, 2009년 8개, 2010년 4개, 2011년 5개, 2012년 3개’가 설립되어 현재 광역문화재단 12개, 기초문화재단 33개가 운영 중에 있다(류정아외, 2013: 115).

<표 5>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ibid.)<sup>5)</sup>

구분	광역 문화재단	기초 문화재단	합계	비고(기초문화재단 설치 지역)
서울	1	4	5	강남, 구로, 마포, 중구
대구	1	3	4	달성, 수성, 중구
인천	1	1	2	부평
울산	0	1	1	고래
경기	1	10	11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의정부, 안산은 문예회관 운영 재단임.)
강원	1	4	5	강릉, 원주, 인제, 춘천
충북	1	1	2	청주
충남	0	1	1	아산
전북	0	2	2	익산, 전주
전남	1	1	2	영암
경북	0	1	1	경주
경남	1	4	5	거제, 김해, 사천, 창원
계	12	33	45	

이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의 기초가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중앙-지역간의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초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주체로서 지역

5) 이 자료의 출처는 문체부 내부 자료로서, 광역문화재단은 2011.12.31 기준, 기초문화재단은 2012.3.13 기준의 자료이다.

문화재단이 속속 설립되고 그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조성되기 시작했다(e.g. 2011년 10월 발족한 ‘광역지역문화재단협의회’, 2012년 5월 발족한 ‘지역문화재단연합회’). 이에 따라서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담하던 예술창작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중앙부처의 사업 기획 역시 과거와는 다른 전달체계를 전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황과 아직까지는 길다고 할 수 없는 역사로 인해서 예산 및 역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래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문화재단은 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과 차별적인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지역마다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자원의 확보 및 활용에 앞장서면서 국내 문화정책의 지형을 점차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표 6>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한 기초자치단체 (류정아외, 2012: 80)

구분	도단위	지역명
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계룡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정선군, 인제군
	충청북도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무안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함양군

특히 단기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시민/주민/근로자의 삶의 터전인 특정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예술’ 사업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가장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선 5기에서 생활예술 정책은 (생활예술‘직장’공동체의 조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생활예술‘취향’공동체와 생활예술‘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과 운영체계를 도출해내는 성과를 보였다. 최근 들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도권의 지역문화재단들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왔다는 점도 생활예술 정책과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2011년 문체부가 뽑은 ‘문화예술 10대 트렌드’에 ‘착한 예술’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문체부가 주최한 ‘지역·전통 문화 브랜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을 필두로 하여, 역시 성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사업, 인천문화재단의 ‘문화도시 공동체 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 부천문화재단의 ‘문화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등이 자주 운위되는 성공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생활예술‘지역’공동체 사업의 확산에서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가 추진해온 ‘마을만들기’가 아마도 가장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11일 은평구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발표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는 2017년까지 '마을아카데미' 교육으로 마을활동가 3,180명 양성, 975개 마을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33개의 '마을예술 창작소' 설치, 150개의 '작은도서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3. 국내 생활예술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국내에서 생활예술 정책/사업/활동은 향후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환되고 세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과거의 위대한 문화유산의 보존'에서 '지식재산의 총아인 창조산업의 진흥'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창조성(individual creativity)에 대한 관심이 문화 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전 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을 추동하는 요소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1997년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문화정책의 창조적 전회(creative turn)'가 이러한 흐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정종은, 2013), 우리나라 현 정부 역시 같은 정책 노선을 열렬히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앞서 세계 각국 문화예술위원회들의 정책에서도 확인했듯이 '관객개발 및 향유확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교육', '지역공동체 및 생활문화 지원' 등 전통적으로는 우선순위에서 엘리트예술에 밀렸던 사업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정신적 가치만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가치가 동등하게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이러한 거시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편으로는 기업 및 학교에서 주 5일 근무의 완전한 정착, 생명연장의 꿈이 현실화시킨 100세 시대의 도래 등이 보다 적극적인 여가문화의 도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컨슈머리즘의 부상에 더하여 디지털 혁명과 모바일 혁명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과거의 수동적인 소비자상과 관객상을 해체하면서 적극적인 문화 '생비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따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같은 맥락에서, 현 정부가 '창조경제'와 함께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이라는 가치들 역시 생활예술 정책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온 국토에서 문화가 융성해지는 비전,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풍성하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전! 이러한 비전들은 과거와 같은 탑다운식 사업모델이나 특정 집단에 편중된 지원 방식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즉 생활예술 활동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바텀업 방식의 사업모델과 시민주도의 민관협력

6) 최근 미래부 장관은 우리나라 창조경제 정책이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큰 틀에서 영국과 독일의 창조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답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층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설명이기도 하다. 가령, 창조경제를 처음 주창한 영국은 문화부(DCMS)가 예술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창조산업'을 설정하고 창조산업이 이끄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조경제로 지칭한 것에 비해, 우리는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관심은 지나치게 강한 버전의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영체계/추진체계/지원체계의 구성이 없이는 이러한 목표들은 그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대부분 예술가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현 정부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성과 중심은 국민 행복 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이 행복하다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라는 잣대에 맞춰 그 성패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는 점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이고, 무엇보다 주목케 하는 점이다’(라도삼, 2013). 이러한 견지에서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계획에서 ‘지역문화 향유기반 조성’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이나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등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하드웨어 조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 및 산업 단지의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표 7> ‘지역문화 향유기반 조성’ 주요 사업 현황(문체부 자료, 2013.10.02)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13,000	13,000	순증	복합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거점형 20개소) 및 프로그램 개발
산업단지 문화 재생 사업	-	12,500	12,500	순증	산업단지 내 유희공간 활용 문화공간 조성 및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
국민문화향유 권 확대	13,844	15,115	1,271	9.2	박물관,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작은영화관 건 립 지원	-	3,800	3,800	순증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설립 추진(‘14년 22개)
남한강 예술특 구 조성	5,000	2,500	△ 2,500	△50	작품활동 및 유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 조성
아시아 문화전 당 개관준비	16,555	63,805	47,250	285	전당 콘텐츠개발 및 전당운영 등
국립세종도서 관 운영	-	6,154	6,154	순증	세종시 행정기관·시민 대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운영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관 운 영	9,530	11,300	1,770	18.6	서울관을 전시, 교육, 창작, 공연을 제공하는 서울 중심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한글박물관 운 영	2,000	7,554	5,554	277.7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 연구조사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광특회계 지 역계정)	102,745	141,120	38,375	137.4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노인건강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 지원 등

셋째,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주요 공기업들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내년에 출범할 민선 6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아니 ‘지역자치’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 지역문화정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지역정부, 지역문화재단, 민간단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는 예산과 기획을 지역에 이양하는 대신 큰 틀에서 지역문화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열정적 후원자’(개체번성 생태계 조성), ‘공정한 심판’(동반성장 생태계 조

성), ‘겸손한 조력자’(자율조직 생태계 조성)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역자치를 둘러싼 추진환경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면, 지역발전의 관건은 물질적·양적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지역들은 과거의 ‘소지역주의’를 넘어서 지역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고양하고 나아가서는 타지역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지역민에 의한 자발적 지역문화 활성화 운동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개별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문화자원의 차별성과 활용가능성’을 발굴하고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성공공식이 된다(류정아 외, 2012). 그 과정에서 지역문화 발전의 필수조건으로서 사람과 공간 및 자원의 ‘네트워킹’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바, 민선 5기 전반에 걸쳐서 각 지역문화재단이 추진해온 생활예술 사업이야말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거점이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활예술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생활예술 사업에 대한 참여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참여도/영향도’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8월에 성남생활예술 사업 참여자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0%(340명)의 응답자가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했으며, 53.6%(228명)가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표 8> 2013 성남 생활예술사업 설문지 응답 내용 요약<sup>7)</sup>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b>생활 예술사업에 참여함으로써,</b>					
1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0%(0명)	4.5%(19)	1.4%(176)	50.4%(214)	2.8%(12)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0%(0)	6.8%(29)	40.9%(174)	48.9%(208)	3.3%(14)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0%(0)	9.4%(40)	42.8%(182)	43.5%(185)	3.5%(15)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0.2%(1)	8.5%(36)	32.9%(140)	51.8%(220)	6.1%(26)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0.2%(1)	4%(17)	33.9%(144)	58.1%(247)	3.3%(14)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0%(0)	2.8%(12)	31.5%(134)	62.4%(265)	3.1%(13)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0%(0)	3.1%(13)	42.6%(181)	51.5%(219)	1.9%(8)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0%(0)	7.3%(31)	43.8%(186)	45.2%(192)	2.8%(12)

7) ‘자아실현 및 개인적인 발전’의 영역에서 생활예술 사업의 영향도를 측정하고자 한 1번~5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①지적 향상(50.4%), ②자신감 향상(48.9%), ③고정관념 변화(43.5%), ④창조성 계발(51.8%), ⑤건강 및 행복감 증진(51.8%)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사회통합 및 지역정체성 제고’ 차원의 영향도를 측정하고자 한 6번~10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발전에 관한 질문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는데,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도 ⑥이웃 확대(62.4%), ⑦타인 이해(51.5%), ⑧지역에 대한 열정(45.2%), ⑨지역 이미지 변화(53.9%), ⑩공공기관 친밀감(61.2%) 등에서 개인적인 발전에 관한 응답의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되었다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0%(0)	3.1%(13)	40.9%(174)	53.9%(229)	1.4%(6)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0%(0)	2.6(11)	34.6%(147)	61.2%(260)	1.6%(7)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0)	0.7(3)	16.5%(70)	80.0%(340)	2.4%(10)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0.7%(3)	7.3(31)	33.9%(144)	53.6%(228)	3.5%(15)

<표 9> 2013 성남과 1997년 영국의 생활예술 참여자 설문결과 비교<sup>8)</sup>

생활예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Yes		No		I don't Know	
		성남	영국	성남	영국	성남	영국
1	관련 지식이나 스킬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92%	79%	5%	12%	3%	9%
2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90%	80%	7%	8%	3%	12%
3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86%	36%	9%	34%	4%	30%
4	창조성의 중요성을 느낀 적이 있다	85%	56%	9%	18%	6%	26%
5	더 건강해지거나 더 행복해졌다	93%	48% 77%	4%	29% 7%	3%	23% 16%
6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었다	94%	92%	3%	4%	3%	4%
7	다른 사람들의 관점/입장/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94%	56%	3%	26%	2%	18%
8	지역의 프로젝트를 돕고 참여하는 데 열정을 갖게 되었다	89%	53%	7%	21%	3%	26%
9	우리 동네와 도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95%	27%	3%	61%	1%	12%
10	성남문화재단,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다	96%	n/a	3%	n/a	1%	n/a
	생활예술사업은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7%	n/a	1%	n/a	2%	n/a
	향후에는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88%	49%	8%	21%	4%	30%

위의 두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에서 생활예술 사업은 단순히 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예술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열정과 필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공헌과 연대감이 주는 만족 등의 내적인 요인들을 통해

8) 영국의 자료는 영국의 자발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는 마타라소(1997)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탤릭체로 적힌 5번, 7번, 9번은 성남과 영국의 질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들이다.

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팽창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생활예술 사업의 미래에 오직 우호적인 요소들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2004년 이후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단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시민주체의 민관협력 체계’의 운영은 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에게 기존의 사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는 지적,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생활예술 사업의 주요 수혜자/참여자가 여전히 직업별·지리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등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외에도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인한 문화예산 축소의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생활예술 사업만으로 (나아가서는 문화예술만으로) 창조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예술 사업은 미학사적으로나 문화정책적으로나 아직까지 충분히 개척되지 않은 광활한 영토이며, 근대적인 예술 개념 및 체계를 넘어서 예술과 문화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혁신의 보고이다.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그들 간의 네트워크화로 인한 실질적인 추진기반의 마련, 그리고 그들이 십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사업 모델과 각종 노하우들이 국내에서 이러한 도전을 위한 가장 귀한 자원이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참고문헌]

- 강윤주 외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라도삼 (2013) 「예술향유 및 생활예술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예술대토론회(2013.04.23) 발표문.  
 라도삼·이정현 (2012) 『마을문화만들기 사례와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류정아 외 (2012)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외 (2013)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윤소영 외 (2009)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임학순·정종은 (2013) 「예술위원회 역할체계 비교 분석: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의 사례」, 한국문화정책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2009) 『성남문화재단 5대정책 2단계 5개년 발전계획 연구』, 2009.02.  
 전수환 (2009) 「성남시민주체의 창조도시 방향성」, 『2009 성남문화재단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정종은 (2013)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부상: 개념들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문화정책 논총』, 27(1): 123-14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Holden, J. (2006)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London: Demos.  
 Matarasso, F. (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Stroud: Comedia.  
 Quinn, R-B.(1997), Distance or Intimacy? – The Arm’s Length Principle,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4(1): 127-160.

Quinn, R-B.(1998) *Public Policy and the Arts: A Comparative Stud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ldershot: Ashgate.

Sinclair, A.(1995) *Arts and Cultures: History of the 50 Years of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London: Sinclair-Stevenson.



## 토론 1.

# 국내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방안

김 보 성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1. 발제문 내용 중 생활예술공동체 유형에 대한 토론 - 정종은 박사는 발제문에서 ‘관심공동체’의 경우.... “지역공동체보다는 지역성(locality)이 훨씬 느슨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예술적 배움과 향상을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감성과 관점과 목소리를 드러내고 표현하려는 욕구는 더욱 강력하다.”고 하였다. 발제자는 생활예술을 (1)일상생활 속에서 (2)일반인들에 의한 (3)자발적 향유예술로 정의하며, ‘지역공동체(주민)와 관심공동체(시민), 직장공동체(근로자)’를 생활예술공동체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으나 상호 관계나 발전단계에서의 관계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거론하지 않았다. 생활예술 시대로의 점진적 확대가 분명해지는 추세에서 세 유형의 상호 관련성을 좀 더 세분화된 분석이 아쉽게 판단되었다. 실제 경험 상으로 초기 아마추어예술 활동의 자발성은 관심공동체 유형이 가장 지속가능한 활동이 유지된다. 결국 갈수록 점증하는 생활예술은 지역공동체 유형보다는 관심공동체와 직장공동체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매개경로를 통해서 관심공동체와 직장공동체 유형이 지역공동체 유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더 유의미한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질문으로 대신한다.
2. 본 토론자는 생활예술을 ‘스스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내 삶의 일부로 문화예술을 일상화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활예술 활동은 관심공동체 유형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문화NGO에서 활동하는 개인들 대부분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생활예술활동을 하기까지 일정기간의 관심공동체 유형의 활동이 선행되었거나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생활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위한 방안은 먼저 전국의 지역공동체 유형의 생활예술 활동주체를 전수 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이미 전국 여러 곳에서 자발적인 생활예술 축제 형식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들 중에서 지역공동체 유형 중에서 근접한 주체를 중심으로 일차 촉매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촉매그룹의 역할은 지역대표성을 인식하고 권역별 또는 전국 규모의 생활예술 네트워크축제를 조직하는 일이다. 지역성과 자발성을 근거로 생활예술 축제의 중심 동력이 되면서 관심공동체와 직장공동체 유형의 생활예술 활동 주체들로 하여금 지역공동체 유형의 활동내용을 점차 담아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의 문예회관 또는 아트센터의 주요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현재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위상과 관계없이 문예회관 또는 아트센터는 전문공연장 정책으로만 관리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지자체의 공연장 기능은 점차 '전문공연장' 기능에서 '예술교육장' 기능으로 중심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기능을 유지하되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내에서 그 비중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5. 기존의 장르 중심의 예술활동을 생활예술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아트센터'(공연장 중심 기능)에서 '아트 에듀케이션 센터'(예술교육장 중심 기능)로의 전환이라면,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의 가장 지역밀착형인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교육센터 활동 안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는 생활예술 생태계의 두 축이 될 수 있다. 또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예술 감성과 문화인식의 변화와 성장을 열어가는 삶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겠다. 7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문화정책의 화두 '모두의,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문화'가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막 첫걸음을 시작한 생활예술의 다른 이름일 수 있을 것이다.

## 토론 2.

##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조 현 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일상성, 일반인, 그리고 자발성에 기초한 생활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최근에 높아졌다. 생활예술이 갑자기 정책적 이슈가 된 것은 아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필요성이다. 1990년대부터 문화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1998년에 발간된 「국민의 정부 새문화 관광정책」(문화관광부)에서는 이전의 문화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규제형 정책’이라면, 새 문화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정책’이라고 적고 있다(10쪽). 시민 참여는 2004년에 발간된 참여정부의 「창의한국」(문화관광부)의 골격이다. 수요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누구인지는 이중적(二重的)이다. 공급자를 관(官)으로 본다면 수요자는 일반인은 물론 예술가를 포함한다. 반면에 예술의 가치사슬에 따라 보자면 예술가가 공급자이기에, 수요자는 예술가를 제외한 일반인을 가리킨다. 수요자 중심을 정책측면에서 보자면, 관(官) 주도 → 예술인 창작지원 → 일반인의 예술관람 확대지원으로 도식화시킬 수 있다.

어쨌든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에 따르면 일반인의 문화향유, 좀 더 정확하게 예술관람이 주요한 정책이 되는데, 여기에 시민의 참여를 덧붙이면 문화향유는 관람을 넘어서 창작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예술창작 및 발표활동 관련 문항이 포함된 게 2006년이다. 2003년까지는 일반인의 창작 및 발표활동은 측정할 충분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문화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2006년에 일반인의 예술창작활동 참여율 2.8%였다.

생활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문화 민주주의’로 이해한다.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의 민주화’보다 자신의 언어로 일상을 표현하는 ‘문화 민주주의’로 문화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는데, 생활예술만큼 적합한 것은 없다는 논리다.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추어리즘과 동호회다. 그런데 이 지점은 논쟁적일 수 있다. 생활예술 동호회가 정책적 관심이 된 데에는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 지역/전통문화 브랜드’ 대상을 차지한 사랑방 문화클럽은 아마추어 예술동호회에 대한 공적(公的) 지원을 제도화시킨 사례다. 2008년부터는 문화공헌을 전제(前提)로 예산과 공간(空間)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동호회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발제자는 생활예술이 공동체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생활예술이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하는가? 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시민 K가 자신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활동(노래이든, 미술작품이든, 문학작품이든)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 K의 문화활동은 생활예술 창작(참여)활동이다. K가 동호회에 참여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말이다. 한편 시민 J가 동호회 a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본다. a는 (지역) 공동체와 관계없이 자족적인 모임, 어떤 면에서는 비개방적 모임이라고 가정해 본다. 이때 J의 동호회 활동, a 동호회 활동 역시 생활예술 활동이다. 위의 가정은 극단적이지만, 가능성(현실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물론 대체로 생활예술은 집단단위가 있을 것이고, 공동체성을 지닐 것이다. 이 이야기를 길게 쓴 것은 생활예술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다.

수요자 중심성, 시민 참여, 문화 민주주의, 예술의 사회적 기능 등이 강조됨에 따라 생활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된 적은 많지 않다. 강윤주 외,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2012)에서는 <표 1>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lt;표 1&gt; 생활예술 지원정책사업

분류	의미	사업예시
생활예술 비전 연결 (people to purpose)	비전의 지향성과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및 공유사업	전국단위 현황조사 연구 네트워크 지원 비전 공유를 위한 워크숍, 포럼 연구자료 발간 및 온라인정보서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생활예술활동 연결 (people to people)	비전달성을 위한 시민활동 연결	자발적 예술단체 네트워크 공동체에예술단체 네트워크 시민 참여형 축제지원 생활예술 속 네트워크 사업
생활예술지원환경 연결 (people to resource)	생활예술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생활매개자, 법제도, 공간, 지식정보화	교육대상자 역량분석 및 커리큘럼 개발연구 생활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생활예술육성법 제정 생활예술육성 조례제정 근린생활예술 공간창출사업 지역 생활예술통합지원센터 조성 생활예술 정보 어플리케이션 기획 및 개발 생활예술 통합 지식정보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민인철(2013),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Focus 광주)에서는 1단계(조례제정), 2단계(실태조사 및 DB 구축), 3단계(공간 및 장비 지원 등 간접지원), 4단계(네트워크 및 공동프로그램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일반적인 문화정책의 지원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조사연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하며, 지역센터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지원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이다.

「2012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 참여율은 3.7%다. 생활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현재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이것은 어쩌면 토론자의 착시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성남의 사례에 이어, 전라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호회에 활동 공간지원, 지도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한다. 이 같은 간접지원은 성남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시군별로 전문인력인 문화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단이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몇몇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생활문화예술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인)다.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진흥 의지를 보인다. 이처럼 생활예술은 적어도 현 정부 출범이전까지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관심이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 행복’과 ‘문화 융성’은 4대 국정기조다. 문화(융성)를 통한 국민 행복이 정책의 영역이 된 것이다. 발제자의 지적대로 이 같은 국정기조에 따르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는 주요한 정책영역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생활예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법령을 살펴보면, 이른바 <문화기본법>에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난해 국회의원 이병석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비교적 생활문화를 상세하게 언급한다.<sup>9)</sup> 지역 주민의 일상성, 동호회, 공간지원 등 현재 성남시나 전라북도의 동호회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

#### <표 2> 지역문화진흥법 발의안(2012. 6.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9) 국회의원 도종환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생활문화, 생활예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② 지역문화진흥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어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어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법률상으로 생활예술이 중요한 정책적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이 같은 법률안이 제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생활권 단위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다. 지자체에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예를 들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 공간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생활문화예술 진흥에 열의를 보인 지자체가 그러할진대,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예술 지원의 제도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년도 문화관련 예산은 늘어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현황임을 감안하면,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생활예술 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예산의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강윤주 외(2012)의 연구, 민인철(2013)의 제안을 넘어서는 지원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토론자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현존의 문화정책사업과 연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관정책사업들에서 동호회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 예를 들어,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에서 동호회 활동의 쿼터를 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순회 사업에서는 지역내 동호회와 예술단체의 연계를 꾀할 수 있고,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에서는 지역내 동호회 협력을 심의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고, 문화이용권 찾아가는 사업은 지역내 동호회에 담당할 수 있고,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기준으로 동호회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말이다.

덧붙이는 말: 한편 생활예술 지원의 필요성을 논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생활체육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생활체육의 정의와 직장체육 활성화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생활체육과 비교하려면, 현재 매우 활성화된 생활체육 동호회들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비교하여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활발하다.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계획(일명 호돌이계획)에 따라 생활체육동호회의 전국단위 조직(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009년 국민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이 만들어졌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펴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조직은 지역과 종목을 두 축으로 하여 구성되는데, 전국에 98,076개의 동호회(클럽)이 활동 중이다.



[그림 1] 국민생활체육회 조직도

문화예술 동호회를 이렇게 전국단위로 구성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 “도의 관심과 지원이 생활문화예술에 집중되다 보니 프로작가들도 아마추어로 전향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전북도민일보 2012년 9월 23일)고 한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이처럼 전국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반드시 문화예술 동호회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 토론 3.

##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방안

정 길 선 (사랑방문화클럽운영위원장)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한다. 문화예술은 만민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권의 중심이 되었고, 전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언제나, 누구나, 가까이에서 쉽게, 평범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 문화정책에서도 국정목표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아래 추진전략으로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을 내걸고 있으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문화향유 영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 구현과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제가 놓여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으며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2013.2.25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즉 문화 자체의 융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문화를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키우는 문화, 행복을 키우는 문화, 경제를 키우는 문화, 갈등을 없애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 등 다섯 개 영역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제시하여 정부 문화정책이 문화와 국민, 문화와 사회, 문화와 국가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013 문화예술교육 포럼 내용)

문화정책으로는 “문화를 통한 국민 행복 가꾸기”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확대 실시를 비롯한 직장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유도,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교육체험을 확대하는 “골든에이지”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세부계획으로 사업설계를 세우고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정책 방향이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접하는 국민의 만족감을 극대화하여 국민 행복 증진의 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중심축을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확장해 나가며,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고유한 목적과 부가

적인 목적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며, 양적 성장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개최되는 “전국 생활예술 네트워크 포럼”은 국가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와 같은 맥락이라 여겨지며 앞으로 성남문화재단 3단계 생활예술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랑방문화클럽에서 7년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의 장은 이미 문화예술활동과 더불어 생활예술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앞서서 활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오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생활예술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생활예술

생활예술이란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고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강운주 외, 201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예술이란 엘리트 예술이 아니고 제도권 예술이 아니라는 반정립의 성격과 일반인에 의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되는 예술활동으로 이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개념 조차도 “생활예술”과 “생활문화예술”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전문예술단체 외의 다양한 생활문화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부천문화재단, 2013: 21)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정의에서는 전문(professional) 예술, 엘리트 예술, 제도권 예술에 대한 대척점으로서의 성격은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지만, 자발적 아마추어 동아리 모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예술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 즉 ‘자발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활예술 개념을 (1) 일상생활 속에서 (2) 일반인들에 의해서 (3)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 순수예술, 고급예술, 전문예술, 엘리트예술, 공식예술 중심의 근대적인 예술 개념 및 체계로부터 벗어나 자발적인 관심과 동기에 의한, 전방위적인 공간 및 영역에서 펼쳐지는, 아래로부터 생성되어 솟구쳐 오르는 예술적 실천을 지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8 )

## 2. 자발성

자발성이란 남의 지시나 영향에 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성질이나 특성이라 정의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이라는 내용은 생활예술 공동체의 주체들로서 주민, 시민,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기본 관심(지역의 문화적 필요 해결, 자아실현과 사회적 목소리, 일과 여가의 균형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활동들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창작 또는 비평 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관심과 참여로부터 나오는 자발성과 자생력이 생활예술 공동체의 핵심적인 원천이자 동기가 된다.

생활예술의 자발성과 순수성은 개인과 생활예술공동체, 나아가서는 지역과 사회의 요청이나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생활예술의 주체가 주민, 시민, 근로자의 정체성을 지닌 아마추어 예술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생활예술의 의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생활예술 활동이나 사업에서 전문예술가나 지역활동가, 문화예술 행정가 등이 매개자, 촉매자, 조력자 등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으며, 양자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때 해당 생활예술 공동체의 관심과 목표도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8 )

### 3. 사랑방 문화클럽의 문제점

사랑방문화클럽 사업의 평가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 ②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재미/기대 하락, ③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 저하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8 ) 등이다.

#### ①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관료제화

: 생활예술 사업 2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행정적인 역할을 문화재단에 넘겨준 이후 재단과 클럽이 너와 나의 구분 없이 하나로 일했던 초기와는 다르게, 서로의 업무를 행정과 기획 등으로 구분하면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 ② 사업의 정형화로 인한 재미/기대 하락

: 재단이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 주어진 ‘업무’를 나누어 실행하는 구도가 굳어지자 네트워크 활동이나 문화공헌 활동 등이 일종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실험보다는 관행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클럽의 입장에서 “식상함”을 느끼고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③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 저하

: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사업의 추진체계가 관료제화하고, 그에 따라 초기의 가슴 벅찼던 활동들이 정형화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동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럽간 네트워크의 친밀성과 긴밀함’이 질적으로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 예술, 생활예술 공동체로서 사랑방의 정신이 훼손되고, 오래된 클럽들과 신생 클럽, 실력이 뛰어난 클럽과 그렇지 못한 클럽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음.

위 세 가지 문제점은 성남 예술 정책의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부분에서 침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로 해석 하고 있다.

#### 4.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발성 참여 방안

##### (1) 회원의 소속감(Membership) 증진

- 지역별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조성
  - 문화예술 수요자로서 시민들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일상 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등 환경 지원 필요.
  - 회원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생산자인 프로슈머로서 활동할 수 있게 인프라를 갖추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필요.
- 클럽지기 역량을 강화
  - 클럽지기 위주로 하여 각 클럽들에 대한 이해.
- 회원 운영을 위한 강사 지원과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통한 수준 제고 필요.
  - 예술 향유 체험, 공동발표 및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
  - 회원들이 삶의 공간 및 생활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자생적 생활 속 문화예술 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문화 예술 저변 확대 가능
- 회원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국제교류 활동 활성화 도모
  - 생활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 국내외 교류 기회 제공
- 생활예술 활동을 통한 고유한 목적 외에 부가적인 목적으로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생활예술교육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2) 네트워크활동의 자생성 강화 방안

- 시민들의 자생적 생활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의 간접지원 정책 강화 필요
  - 문화재단이 생활예술을 주도하고 성남시에서 “뒤 늦게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으로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 물적 협력을 통해 창작 공간 확보와 공연장 활성화.
  -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 최소화를 통해 생활문화예술 모임들이 자생성을 갖고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 사랑방문화센터의 시설 필요
  - 성남시청의 행정조직 안에 사랑방문화과 필요
- 지역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예술강사풀(pool)’이 필요
- 시민들 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및 코디네이터 양성이 필요.
  - 문화재단에 의존했던 기획을 스스로 기획하고 코디네이터 들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반영.



- 묵은 공간(성남시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창조적 공간(문화예술 활동 거점)으로 재생
  - 사랑방 운영위원회 활동 공간 장소 제공
  - 발표의 장 제공 확대를 통해 연습동기 제공 및 모임 간 교류 확대 여건 조성
- 운영위원회 조직력 강화
  - 활동 영역별 조직 세분화로 역할 분담
  - 체계적인 관리체계
  - 클럽지기 역량을 강화
- 생활예술활동 콘텐츠 운영
  -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 자생적으로 생성 소통 될 수 있는 체계 확립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생활예술 활동이나 사업에서 전문예술가나 지역활동가, 문화예술 행정가 등이 매개자, 촉매자, 조력자 등으로 참여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전문예술가와의 만남, 동호회 간의 만남을 통한 공동예술체를 만들어가도록 노력
-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서비스
  - 수요 조사, 프로그램 연결 및 이용 편의 등을 돕는 문화복지 전문인력(‘문화복지사’)을 지역 문화시설 및 주민센터 등에 배치

### (3) 네트워크활동의 자발성 강화 방안

-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시민정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거리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 문화축제 장을 마련
  - 포럼과 워크숍, 장르별 캠프 개최
-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한 생활밀착형 예술 프로그램 확대
  - 정기적 연구 모임
- 지역별 생활예술 관련 도시/ 축제간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및 국제적인 자매결연
- 생활예술단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정보교류

### (4) 동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성남시 3개 구청별, 51개동을 3개~4개동으로 묶어 사랑방 연주행사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랑방 축제까지 참여시킴으로 해서 “생활예술공동체”로 발전 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
  - 51개동의 동네클럽을 구축하고 동네클럽을 바탕으로 한 골간조직의 정립과 장르 및 사업별 지원체계를 갖춘 조직 정립
  - 성남시 전 지역의 51개 동마다 “우리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추진 조직을 구성하고 “동네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성남시 전체의 상호 연계체계 확립
  - 전국과 세계의 “동네만들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남시의 동네만들기를 메카로 정립
  - 성남시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예술 활동 거점으로 재생하여 활용
  - 문화시설이 부족한 구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환경을 조성

- 마을공동체만들기의 활성화를 통해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 경로나 활동 체계를 만들어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
- 마을공연, 마을예술제, 마을 음악회, 마을전시회 등으로 확산

(5) 생활예술학교 운영

1) 문화예술학교 거점학교로 지정.

- 폐교를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위한 연습실, 작업 공간, 무대, 전시 공간 등을 갖추고 시민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
- 지역에서 유명무실한 건물을 지역예술 지원과 예술을 통한 마을 공동체 복원을 하여 예술가들과 문화예술활동가들이 작업공간으로 활용.
-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창의성, 정체성, 다양성, 문식성의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예술매체와 사회, 예술매체와 주체 사이의 소통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 생활예술가, 생활예술 기획자, 생활예술교육자, 교육대상자를 구분
  - 역량내용과 각 역할의 발전 수준에 맞는 역량 수준을 분석하여 역량 맵을 구성함.
  - 역량 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육성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함.

2) 실행과 현장 중심의 교육운영.

-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문화예술 활동 및 접근 기회 확대
- 시간과 공간을 관용적으로 개방하고 풀어주어 마음껏 내재된 창의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를 넘어서 학생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다문화 아동· 청소년 포함)의 인성교육을 위해 협력.
- 미래사회에 대처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대응 방법의 준비는 예술적인 창의교육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 다양한 예술교육 경험을 하게하여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워 나간다.

2) 기업, 학교 연계사업 방안

- 직장 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유도
  -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등의 직장동호회 강사 지원 및 콘서트 제공
  - 워크샵 문화예술 캠프지원
  - 문화 현장체험 활동 지원
- 대학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시설 및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등 인재의 육성, 문화의 비즈니스화 정책 강화
- 기업의 지역사회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창의성 역량 제고
  - 기업 구성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혁신성으로 직장내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함.
  - 기업이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참여 유도.
  - 기업대상 문화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
- 기업과의 사랑방문화클럽과의 네트워크 구축

## 3) 학교에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 실시
  - 문화예술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예술체험을 통해 문화적 불소통을 해소하고 육체적, 정신적 힐링(치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으로 느끼고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
  -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감상능력 계발.
  -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으로 구성
  - 문화적 토양 아래서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
- 학교 안과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
  - 공교육에서 “배우는 문화예술”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나누는 문화예술”, :즐기는 문화예술“ 발전하여 ”발전하는 문화예술“로 확산.
  - 체험 및 공연,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
- 학교와의 연계로 방과 후, 창의적 체험 활동, 선도학교 지원
  - 예술치유, 예술 놀이 등 개발
-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 다양한 지역의 환경과 연계하여 활동
  - 예술, 교육환경, 교육학, 인간의 발달, 협업(지역과 교육시설)에 대한 이해로 상호보완적 기술과 교육가의 감성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 예술을 통한 혹은 예술 경험을 통한 학습을 주도하는 인력으로 예술영역, 교육영역, 경영영역의 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폭력 감소,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 학교폭력에 대한 문화적 접근 필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사회성 발달
  -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등으로 정서적 순화와 정화기능.
-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통합교육과정
  - 무용,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와 같은 각각의 예술 형태의 스킬, 사고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으로 공감과 소통을 여는 문화예술교육
- 장르별 모둠형성 활동 과정을 통해 소속감, 공동체 의식 향상, 문제행동 예방

생활예술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은 ‘예술 그 자체’도 아니고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선전과 같은 ‘비예술적 목적’도 아니며, 생활예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당 공동체를 감싸고 있는 더 커다란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2013.8 )

가나자와 전 시장은 '문화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하며 문화는 도시의 매력과 활력의 원천이라는 생각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문화현장에서도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기타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문화적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 참

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야 말로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문화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문화적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문화적 권리 실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여전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문화다양성의 원칙은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우리들 자신의 삶을 보다 낮게 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지 나름대로의 지혜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하겠다. 이것은 문화적 권리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의 발현이다. '함께하는 삶과 예술'은 이러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문화다양성의 보장을 이루어내고, 문화예술생태계의 작은 순환구조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문화예술의 생태계적 순환은 현재 문화산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구조로 왜곡되어 있다. 비판적 수용에 의한 재창조로 문화예술생태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표현하는 생활예술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 성과들이 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한 토양으로 자리잡아야한다. '함께하는 삶과 예술'은 생활권으로 지역화된 작은 단위 안에서 생활예술 활동을 꽃피우는 '생활예술공동체'를 일구어내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다핵적 조직구조를 갖추어가자는 것이다.

생활예술공동체의 상호 연대가 다핵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생활예술공동체의 속성 자체가 자생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순환 구조 속에서 개별 생명체와 같이 자기 완결성을 가지며, 정체성이 유사한 단위들끼리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경제개발을 중심에 놓는 잔존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생활예술공동체 활동 자체가 썩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자생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예술공동체운동을 확산시켜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적 자기발현의 요구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때 새로운 문화환경의 변화는 어느 새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삶과 예술'은 지역적 차원의 삶을 풍요롭게 할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들과 함께 교류와 연대의 그물망을 엮어나가게 될 것이다.

